

Plus-size 여성의 연령별 신체특성과 의류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김애린·하희정*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현대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편의성 추구의 생활양식 변화는 신체에너지 균형의 부조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성장기 아동에서 성인까지 과체중 및 비만 체중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류산업에서도 Plus-size시장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Plus-size 여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년기 여성이나 노년기 여성으로의 변화 체형으로 연구되어 왔거나, 다른 체형들과 함께 체형의 일 유형으로 다루어져왔다. 현재 Plus-size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기성복 업체의 대부분도 표적 고객을 중년층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35세 미만의 Plus-size 여성 소비자들은 기성복 구매에 대한 불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류업체가 표적 고객 연령에 준하여 size spec과 생산 호수를 달리하고 있으며, Plus-size 체형은 동일한 성(性)이라도 피하지방의 축적량과 부위가 연령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앞으로 활성화될 Plus-size 시장에 대비하여 Plus-size 여성의 연령별 신체 특성에 대한 치수 정보와 이를 반영한 체계화된 치수 조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Plus-size 판정기준(Röhrer 지수 1.5이상, 가슴둘레 90cm 이상, 상대 체중 110 이상)을 충족시키는 20대에서 60대까지의 성인 여성 148명을 대상으로 직접 측정과 간접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치와 지수치를 통해 Plus-size 여성의 대표 체형의 형태 요인과 연령별 대표체형에 대한 형태적인 특징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치수 정보를 얻었다. 이를 근간으로 연령별 신장에 의한 기본부위 치수의 다빈도 구간을 선정하여 Plus-size 여성에게 적합한 의류치수체계를 제시하였다.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상관관계분석, 분산분석, 교차분석, 던컨의 다중비교 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Plus-size 여성의 대표적 체형에 대한 신체적 특징 분석 결과, 가슴둘레와 배둘레, 엉덩이 둘레의 치수 차이가 2cm 미만으로 나타났고, 엉덩이둘레 I보다 복부둘출부위에 얇은 셀룰로이드 판을 수직으로 댄 상태에서 측정한 엉덩이둘레 II의 치수가 3.44cm 크게 나타났다. 이는 둔부에 비해 흉부와 복부에 지방 침착이 많고, 복부가 돌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인 분석 결과에서도 체간부 수평크기가 제 1 요인으로 나타났고, 가슴두께,

- 배두께, 허리두께에 가장 높은 부하량을 보여 체간부 측면 두께 항목이 Plus-size 여성을 특징지을 수 있는 주요한 부위임을 알 수 있었다. 원형 설계시 이 부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Plus-size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둔부와 대퇴 부위가 유의하게 큰 하체 비만형이라 할 수 있으며, 50대와 60대는 흉부와 복부가 유의하게 큰 상체비만형이라 할 수 있다. 연령 증가에 의한 측면 실루엣에 의한 형태적 특징은 20대와 비교하여 30대는 앞허리와 배부위의 두께가 증가하였고, 40대는 앞허리, 배 부위와 함께 등 부위도 두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엉덩이 밑 두께는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0대는 등, 가슴, 배 부위의 두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30대에서 50대까지 신체의 측면의 실루엣 변화가 후면(後面)보다는 전면(前面)에 나타나고 있어 이 부위가 지방 침착의 주요 부위임을 알 수 있다. 60대는 측면 실루엣의 변화가 신체의 후면(後面)에도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지방 침착에 의한 실루엣 변화이기보다는 노화에 의한 자세의 변화로서 목부위가 굽고, 허리의 만곡이 줄어들며, 엉덩이가 뒤로 나오는 형태로 변화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3. Plus-size 여성과 표준체형 여성과의 신체 비례 비교 분석 결과, 신장 대비에서 유장, 어깨 끝점사이길이, 등길이, 앞길이, 소매길이가 모든 연령에서 Plus-size 여성이 표준체형의 여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가슴둘레 대비에서 Plus-size 여성의 앞길이, 진동둘레, 상완둘레, 겨드랑너비가 절대적인 치수와 비례에서 표준체형의 여성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목 밑둘레, 앞땀, 뒤핀은 절대적인 치수는 크고, 비례는 표준체형의 여성보다 작게 나타났다. 체간부 drop치에 의한 비교에서 가슴둘레-허리둘레 항목은 Plus-size 여성이 표준체형의 여성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엉덩이둘레-허리둘레, 엉덩이둘레-배둘레, 엉덩이둘레-가슴둘레는 보다 작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 집단 모두 둔부를 제외한 흉부와 복부의 치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Plus-size 여성의 치수 증가가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고, 표준체형 여성과 비교하여 각 부위의 치수 증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며, 연령별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Plus-size 여성을 위한 기성복은 표적 고객의 연령에 준한 치수 설정과 원형 설계를 해야 적합성이 높은 의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 된다.
 4. Plus-size 여성을 위한 의류치수체계에서 기본부위의 치수구간은 KS 치수체계와 본 자료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고려하여 cover율이 높은 구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신장 : 150cm~170cm 범위에서 5cm 간격, 가슴둘레 : 92cm~117cm 범위에서 5cm 간격, 허리둘레 : 73cm~103cm 범위에서 5cm 간격, 엉덩이둘레 : 90cm~114cm 범위에서 4cm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위의 치수 구간에 따라 Plus-size 여성의 대표적 체형의 기본부위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신장은 155cm, 160cm 구간에 68.9%, 가슴둘레는 92cm, 97cm, 102cm 구간에 78.99%, 허리둘레는 78cm, 83cm, 88cm 구간에 72.9%, 엉덩이둘레는 94cm, 98cm, 102cm 구간에 82.45%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원형 설계 및 주 생산 치수와 생산 비율 결정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5. Plus-size 여성의 연령별 신장에 의한 기본 부위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의치수는 20대 : 97-98-160(가슴둘레-엉덩이둘레-신장), 97-102-170, 30대 : 92-94-155, 92-98-155, 92-102-160, 40대 : 97-94-155, 92-94-160, 97-98-160, 50대 : 97-98-160, 107-98-

160, 60대 : 97-90-150, 97-94-155, 102-98-155, 107-102에서 보다 높은 출현율을 보였다. 하의 치수는 20대 : 78-98-160(허리둘레-엉덩이둘레-신장), 78-106-165, 30대 : 78-98-155, 83-102-160, 40대 : 78-98-160, 88-98-160, 50대 : 83-94-155, 83-98-155, 88-98-160, 93-98-160, 60대 : 78-90-150, 83-94-155, 88-98-155, 93-102-165에서 보다 높은 출현율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Plus-size 여성의 연령별 신체 특성과 의류치수체계를 기성복 업체의 치수 체계와 원형설계에 반영한다면, Plus-size 여성 소비자들은 신체적합성과 보완적 기능이 뛰어난 의류를 선택·구매할 수 있고, 의류업체에서는 계획생산을 통해 재고율을 줄일 수 있으며, 원가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제품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기성복의 맞춤형 주문생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향후 연구들에서는 Plus-size 여성에 대한 신체적 정보와 의류치수체계를 바탕으로 Plus-size 여성의 기성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원형 개발 및 그레이딩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비교 논의하고자 한다.

Plus-size 여성의 체형 결점을 보완하고 기성복 착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 생산 치수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